

몸져누워있어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첫 스타트인 하우스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하우스 콘서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부분이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진행된 식사 시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오후 6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음악회였습니다.

음식 파트를 위해서는 시무 장로님 부부와 교역자 및 몇몇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친교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섬기시는 분들이 먼저 식사하시고 오후 5시부터는 티켓을 들고 오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직접 만드신 우동, 스시, 갈비, 닭튀김 및 주문해서 가져온 일부 한식 밑반찬 등 푸짐한 음식들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게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끊임없이 음식이 만들어지고, 친교실 밖에서는 갈비 바비큐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양으로는 무한리필을 기본으로 하고, 맛으로는 최고를 지향하는 식사시간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우스 콘서트 다음 날 기가 막힌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섬기셨던 분들의 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부부가 다 환자다." "몸져누워있지만 마음은 행복하다." 섬기신 분들의 헌신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몸은 아파도 마음은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음악회에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월등한 수준의 음악을 접하고 모두 놀라움 함께 진한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주가 진행될수록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와 함성은 활짝 열린 마음에서 솟아나는 분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달리 표현할 수 없는 행복 그 자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음악회는 생중계가 되어 참석하신 분들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보셨는데 음악회 후 닷새 만에 유튜브에서 8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으로 뉴욕노회 미자립 교회 다섯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서곡을 풍성한 감사와 행복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본당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3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영어 예배	오후 1:00 본당
	주일 찬양 예배	오후 2:3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자훈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일학교	영아부(3세 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미정(T.B.D)	친교실
Mommy & Me	미정(T.B.D)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VISION 2022  
EVANGELISM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1권 40호 주후 2022년 10월 2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우영주목사	김중훈목사
신앙고백	다같이		
찬송	91장, 412장		
기도	박제진집사	김근태장로	김현수장로
성경봉독	막(Mark) 5:1-20		
찬양	예일관악단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김중훈목사		
찬송	630장		
봉헌	다같이		
환영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10월 5일 오후 8:30

- 기도: 이연희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우해숙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계현민집사
- 2부: 지재홍장로
- 3부: 김두성장로

9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박지숙집사
- 3부: 신경애권사 임미라권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본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기는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제약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예배는 지금처럼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만, 현장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카네기홀 연주(10/9) & 창립30주년 기념 메시아찬양제 연습: 3부 예배 후, 찬양대실  
\* 카네기홀 연주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티켓이 필요한 분은 할렐루야 찬양대 총무(한진 집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식사대접 하실 분과 부역봉사로 섬겨주실 분은 찬양위원회(박재우장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번 주 식사 및 과일대접: 최정희권사 부역봉사: 권사 자원자들
- 선교회 월례회: 오늘 3부 예배 후 각 선교회 별로
- 정기당회: 오늘 월례회 후 친교실에서
- 제직회: 10월 23일로 연기
- 9월 성경통독 및 다독자보고: 통독/10명, 다독/119명  
\* 친교실에 목장별로 통독 및 다독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장년교육사역부)
- 헤민병원 건강검진: 한국에 위치한 헤민병원에서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 방문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월례회 후 유치부실에 마련된 안내처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선교회 (물댄동산) 호도관광: 이번 주 월요일(10월 3일) 1선교회가 뉴저지 조각공원으로 호도 관광을 다녀옵니다. 안전하고 기쁨 넘치는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설문조사: 영적 소명의식과 팔로워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입니다. 마을지기, 목자 및 총무에게 전달된 링크를 참조하시고, 10/9 (주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꽃: 김근태장로&최양미권사(다비다생일), 심성실권사(남편생일), 최원걸집사&최상희집사(결혼기념)  
- 사랑의 식탁: 김근태장로&최양미권사(다비다생일), 김동환장로&이정은권사(민재생일), 심성실권사(남편생일)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11am Service).  
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



venmo



교우동정

- 입원 : 도명원권사 (NYU Langone Kimmel Pavilion KP1715)
- 한국방문 : 채석기집사, 채보문집사, 전미경 권사, 김낙승집사, 박문환장로

행사예고

- 10/9 카네기홀 연주
- 10/31 (월) 사랑선교회 호도관광 (롱아일랜드 롱비치)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5-41)

[본문 이야기]

갈릴리 호수는 길이 21km(13마일), 폭 13km(8마일), 수심 50m의 바다같은 호수이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낮 동안 따뜻하게 데워진 호수의 공기가 부딪칠 때 갑자기 폭풍우가 생기는데 때로 2m가 넘는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난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결국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다.

1. 예수님이 탄신 배에도 풍랑이 있다.  
인생에는 폭풍이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탄 배에도 폭풍이 있었다. 풍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전도서 7:14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고 했고, 야고보서 5:13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 것은 우리가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2.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죽게 될 때 까지 놓아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전까지는 자기 경험과 기술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죽게 되어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 문제이다. 삶의 고통은 생명의 신호이다. 맹장염의 고통은 복막염이 되지 않고 회복하라는 신호이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일 때가 있다. (사業, 건강, 자녀, 바이러스). 두 가지만 확실히 하자.  
먼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3.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종교적인 권위에 갈수록 반감이 짙어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다. 신성한 질서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조롱한다.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해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불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편을 보여주라. 사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 갇힌 사자를 풀어주라. 설명으로 안 된다. 보여주어야 한다. 누가 보여줄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결론]

1. 풍랑은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온다. 실패가 다음을 위한 실력과 지혜가 되게 하라.
2.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셨다. “어찌하여” 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신다. 팬데믹을 통하여 믿음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신다. 상황은 변한다. 과학, 경제, 군사력으로도 바이러스 못 막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3. 믿음이 떨어지면 풍랑이 두려워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바람과 바다가 두렵지 않게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무서워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자.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
- CSN (www.csntv.net): 주일 오후 8:40 본방송 (재방송, 화요일 오전 9시)
- K-Radio AM 1660 (라디오): 매주 수요일 오후 12:54 (목회자 칼럼)